

##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김 현 선

### 1. <삼승할망본풀이> 연구의 시각과 각편의 선정

<삼승할망본풀이>는 이른바 삼신에 관한 본풀이이다. 한국의 전역에 삼신에 관한 신화는 <제석본풀이>로 고정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본풀이가 전승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생명을 잉태시키고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신의 직능에 따른 여러 가지 신격이 각기 존재한다. 제주도에는 특히 생명을 관장하는 신격이 미분화되어 있어서 만신전을 구성하는 신의 면모가 다양하게 발달한 특징이 있다. 특히 <삼승할망본풀이>는 구삼승할망, 삼승할망, 마누라 등의 신이 동일한 본풀이에 얽혀 있어서 어린 생명과 관련되는 신이 두루 존재한다. 구삼승할망은 어린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저승으로 데려가는 신이라면, 삼승할망은 이승에서

아이의 목숨을 주고 지키는 신이고, 마누라는 아이에게 질병을 주는 신이다. 다른 고장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어린 생명에 얽힌 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본풀이라고 하겠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에서 구연되는 생육신의 본풀이이다.<sup>1)</sup> 제주도 큰굿 전체를 일별하면서도 《불도맞이》는 그동안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 추정된다. 이 본풀이의 흥미로운 전개 속에서도 신화와 제의를 연결시켜 다루고자 하는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일정한 단위인 맞이에서 구연되는데 특히 《불도맞이》에서 <삼승할망본풀이>가 핵심적 기능을 한다. <삼승할망본풀이>와 《불도맞이》의 제의와 신화적 상관성에 대해 기존 연구사에서 천착하지 않았으므로 <삼승할망본풀이>의 본질적 면모가 규명되지 못했다고 이해된다.<sup>2)</sup>

1) <삼승할망본>에는 <구삼승할망>, <삼승할망본> 등이 합쳐져 있기가 일쑤여서 그것을 갈라서 말하기도 하고, 합쳐서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마누라본풀이>까지 합쳐서 구연하므로 생육을 위협하는 신과 생육을 수호하는 신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단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세 가지 신은 제주도의 생육신이 어떠한 순서로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2) 신앙의례적 차원의 성격 규명에 관한 논문은 이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신화와 의례인 <삼승할망본풀이>와 《불

아울러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라는 제의를 기준 삼아 보면 그 내부에서 있는 유사한 다른 본풀이의 상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도 그다지 진척된 바 없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 내에서 일단 <마누라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상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할망질을 치는 서두에서 구연되고, <마누라본풀이>는 수레멜망악심질침에서 서두의 본풀이로 구연된다. 사리가 이렇다면 <삼승할망본풀이>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이 본풀이의 상관성을 밀도 있게 다루는 일이 필요하다. 세 본풀이는 사람의 생명, 질병을 손상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등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해명하는 본풀이에 해당한다.

이와 아울러서 <삼승할망본풀이>의 자체적 의미가 무엇이고 신화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역시 진척되거나 제기된 바 없어서 이 본풀이에 관한 연구가 착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의 본풀이가 어떠한 신화사적 변천을 겪어왔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풀이

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자료이고, 당신본풀이와 일정한 관련을 지닌 자료임은 숨길 수 없다.<sup>3)</sup> <삼승할망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도 규명하는 것이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이 본풀이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가 무엇인가 규명하는 일이 훨씬 소중하다.<sup>4)</sup>

<삼승할망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와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sup>5)</sup> 두 본풀이는 의례 내적 공통점에 의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신화소적 공통점 때문에 긴밀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sup>6)</sup> 중동아시아에서부터 동아시아 일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변이하는 신화소의 궤적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므로 <삼승할망본풀이>는 이러한 각도에서 해명해야 마땅하다. 이 신화소의 핵심은 꽃 피우기 경쟁에 있다. 이 세상을 차지하거나 이 세상의 인간 생명을 차지하는 신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경쟁에서 승리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생명을 관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겠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 제의와 상관성 속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신화와 의례가 선

도맞이》의 상관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

이수자, 1992,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3)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교섭양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긴요한 자료는 몇 가지가 있다. <칠성본풀이>, <세경본풀이>, <사만이본풀이>, <맹감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이 그것이다. 이 본풀이는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상관성을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는 자료이다.

4)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신화의 논의는 아니지만, 가설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성격을 논의한 연구의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김현선, 1977, 「한국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조동일, 1977,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전자는 본풀이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이고, 후자는 본풀이의 역사적 성격을 말한 것이다. 특히 후자는 구비서사시의 역사적인 성격을 논의하면서 이른바 고대 여성영웅서사시로 <삼승할망본풀이>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5) 두 가지 본풀이는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적인 공통점은 창세신화에서 꽃 피우기를 하는 경쟁 신화소가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화에서도 동일한 요소가 발견된다. 이 신화소는 흔히 후래자가 선재자의 치소를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을 하는데, 두 가지 본풀이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선의 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각주 4번의 글이 그것이다.

6) 김현선, 2002,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문학회.

후에 관계없이 text와 context의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관되는 점을 밝혀야 한다. 말로 하는 신화인 본풀이와 행위로 하는 뜻이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비교된다. 아울러서 불도맛이 내에서의 다른 본풀이인 <마누라본풀이>, <이공본풀이> 등의 상관성을 논의하면서 뜻이의 본풀이가 접속되는 원리와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마땅하다. <삼승할망본풀이>의 핵심적 요소인 꽃 피우기 경쟁의 세계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제의적 성격을 이해하면서 불도맛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의례와 신화를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게 되리라 예측된다. 또한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가 마련된다. 제주도 무속신의 직능에 따라서 본풀이가 중복적으로 생성되지만 고유한 본풀이의 신격을 정하면서 <삼승할망본풀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누라본풀이>와 <이공본풀이>는 불가피하게 묶여 있으니 그것이 어떠한 연유가 있으며 이유가 무엇인가 해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질은 <삼승할망본풀이>의 ‘꽃 피우기 경쟁’화소의 신화적 분포와 변이에 있다. 이러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 무속신화의 이해 일단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매우 중요한 본풀이인데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여러 가지 각편이 존재한다. 각편마다 의의가 있으나, 이 본풀이에는 복

잡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하게 각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어떠한 각편을 기본 자료로 삼을 것인지 논의가 요구된다. 이 본풀이에는 세 가지 신에 관한 내력을 담고 있다. 첫째는 구삼성할망 또는 저승할망 또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에 관한 내력담이다. 둘째는 생불할망 또는 이승할망 또는 명진국할망에 관한 내력이다. 셋째는 대별상 마누라와 서신국에 관한 내력이다. 세 가지 신에 관한 내력은 《불도맛이》에 모두 들어 있으나, 이 가운데서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에 관한 내력은 <삼승할망본풀이>에 들어 있다. 마누라에 관한 내력은 <마누라본풀이>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 본풀이의 복합성에 따른 각편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할망에 관한 내력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할망본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sup>7)</sup>

본풀이에 관한 각 편의 비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채록의 방식도 다르고, 채록의 조건도 다르지만, <삼승할망본풀이>는 다양하게 채록되었다.

채록자의 착오인지 제보자의 착오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승할망 또는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의 상관성이 기술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제보자인 심방에 따라서 이러한 할망의 실체를 구분하고자 하는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심지어는 11번의 제보자처럼 완전히 혼재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정리자

7) 이에 관한 교시는 강정식의 글에서 얻을 수 있었다. 상세한 논의는 강정식의 논의에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강정식, 2003. 10. 18,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문 참고.

번호	자료명	구연자	채록자	문헌	본풀이 현황
1	명진국생불할망	박봉춘	아끼바	『조선무속의 연구:상』	A
2	맹진국할망본	김매옥	진성기	『남국의 무가』	A
3	저승할망본	김매옥	진성기	『남국의 무가』	B
4	마누라본	김매옥	진성기	『남국의 무가』	C
5	할망본	강임생	진성기	『남국의 무가』	AB
6	할망본	고술생	진성기	『남국의 무가』	C
7	할망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AB
8	마누라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C
9	삼승할망본풀이	진부옥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AB
10	마누라본풀이	진부옥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C
11	삼승할망본풀이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C
12	구할망본	문정봉	문창헌	『풍속무음』	A

\* A: 이승할망본 B: 저승할망본 C: 마누라본

의 착오라면 다행이나, 그것이 아니고 뒤섞여 있다면 이 본풀이의 전승이 축소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절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적극적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자의 혼동도 여기에서 생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각 편은 안사인 구연본이다. 이 자료는 비교적 현장의 문맥이 온전하게 살아 있으며, 제의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의 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자료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지는 이 본풀이의 신화학적 분석을 할 때에 줄거리를 제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른 자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정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안사인 구연본은 서사단락이 풍부하고, 사건의 전개가 선명하게 되어 있다. 채록 자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있고, 정확한 전사가 이루어진 점

도 또한 분명한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특징이다. 연구의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해서 연구하기에 관한 다른 각편의 검증 확장이 필요하다. 세 가지 본풀이에 관한 논의는 《불도맞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만 지적하기로 한다.

## 2.<삼승할망본풀이>와 《불도맞이》의 상관성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에서 구송되므로 《불도맞이》의 제의적 절차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불도맞이》가 간단한 제차가 아니므로 <삼승할망본풀이>도 이 제차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불도맞이》는 불도에 관련되는데 몇 가지 의문이 성립된다. 불도에서 ‘생불꽃’에 생명력의 근원을 부과해서 해명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sup>8)</sup>

《불도맞이》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여러

8)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4~110쪽.

가지 성격의 신이 혼재되어 있는 제차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선신과 악신을 대비시켜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선명하게 집약되어 있으므로 제차의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불도맞이》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신을 정리해서 보이면 이 점이 다소 정확하게 해명되리라 생각된다.

- (가) 칠원성군
- (나) 삼승할망
- (다) 구삼승할망
- (라) 마누라(대별상)
- (마) 악심꽃
- (바) 불리꽃 · 가지꽃

《불도맞이》에 입각해서 본다면 단일한 신에 대한 내력과 기원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점이 문제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신의 내력을 복합적으로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도맞이》에서는 의문스러운 신이 다루어지고 있으니 그 신이 곧 칠원성군이며, 칠원성군과 삼승할망의 관계도 의문스럽다.

《불도맞이》의 맞이 상에는 칠원성군과 삼승할망의 상이 윗상과 아랫상에 맞추어져 차려진다. 삼승할망 상이 윗상이며 칠원성군 상이 아랫상이다. 기메인 송낙과 제물이 각기 숫자에 맞게끔 차려진다. 삼승할망 상에 기메가 셋이 놓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칠원성군 상에 일곱이 놓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에 대한 해답은 쉽사리 마련되지 않는다. 다만 추정을 하자면 삼승할망의 세 가지는 삼승할망, 구삼승할망, 마누라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악신도 신으로 모시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sup>9)</sup>

삼승할망상 밑에 있는 칠원성군은 말 자체로는 쉽사리 이해되는 신격이다. 절의 칠성각이나 본토의 <칠성풀이> 등에서 섬기는 신격과 부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도맞이》 제차의 서두에서 삼승할망을 섬기는 것에 앞서 <초감제>에서 ‘칠원성군에게 축원하여 소지사름’을 하는 제차가 있다. 다른 제차에 없고 《불도맞이》의 서두에 있는 이 대목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제차이다. 제상과 제의 절차에서 칠원성군을 거론하는 것은 《불도맞이》의 신격이 누구인가 판가름하게 하는 요인이다.

《불도맞이》에서는 서신국 마누라인 대별상도 일정 부분 제의에서 모셔진다. 명진국 따님애기와의 갈등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마마를 하게 되는 신격이 곧 대별상이다. 대별상 역시 이 제차에서 모셔지는 신격이기 때문에 《불도맞이》와의 관련성 속에 논의되어야 한다. 본토에서는 마누라의 신격은 성격이 다양하고 명칭이 다채로워서 특별한 거리에서 모셔진다. 별상 마누라는 장군신이기도 하고 호구애기씨와 겹쳐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불도맞이》의 마

9) 심방에 의하면 기메인 송낙이 세 개가 놓이는 것은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 등이라고 말하나 과연 그런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8월 24일 이충춘 심방이 행원 옷당에서 말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누라신은 호구애기씨와 일정부분 관련된다. 마누라신이 흥역, 불거리, 마마 가운데 어느 신격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새로운 생명에게 해꼬지를 하는 신인 것만은 분명하다.

《불도맞이》에서 꽃도 모셔진다. 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양측면이 공존한다.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수레멜망약심꽃은 인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 꽃의 근원을 밝히고 이 꽃을 제거하고자 한다. 《불도맞이》에 해당하는 꽃의 내력을 말하고 이 꽃을 퇴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꽃과 다르게 ‘불리꽃’이나 ‘가지꽃’은 인간에게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도맞이》에서 핵심은 제의에서 꽃에 있으며 꽃은 생불에 해당한다. 꽃은 생명의 상징이다. 꽃은 여러 제차나 본풀이에서 등장한다. 꽃 피우기 경쟁을 하면서 생명의 주도권을 다투는 것은 《불도맞이》의 핵심적 요소이다. 생불할망이 된 명진국 따님애기의 내력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구삼승할망인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이에 아울러서 서신국 마누라의 내력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도맞이》에서 핵심적으로 모셔지는 신격은 명진국 따님애기이고 젓상의 맨위에 있는 송낙 셋은 생불을 뜻한다. 송낙 7개가 젓상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칠원성군을 말한다. 생불할망과 칠원성군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생불할망은 제주도에 섬기는 고유의 불박이 신격이라고 한다면 칠원성군은 외지에서 들어온 떠돌이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혼재하면서 곳상에 각기 병립하여 모셔지고 있다. 칠원성군은 구체적으로 본풀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도의 <칠성풀이>가 <문전본풀이>로 귀착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불도맞이》의 핵심은 역시 <삼승할망본풀이>에 있으며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의적 상관성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불도맞이》에서 맞이하는 신을 맞이하는 일종의 영신의례이다. 맞이하는 제주도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곳에서도 천궁불사맞이, 성주받이, 성주맞이 등의 용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곳에서도 맞이하는 신을 초치하는 것은 개별신을 위한 종합제전적 성격을 지닌다. 제주도의 맞이 역시 이에 어긋나지 않는다. 개별신의 의례이면서 종합제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제주도 맞이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주도의 맞이의 핵심은 신을 맞이하는 ‘질침’에 있다.<sup>10)</sup> 질을 치는 것은 일종의 치도(治道)이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질을 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핵심적 관건이므로 그 신의 내력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맞이 속에 풀이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맞이하는 개별 청신의례이면서 영신의례가 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그러한 뜻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울곳의 맞이에서도 본풀이를 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궁맞이》 또는 《천궁불사맞이》에서 본풀이가 존재했을

10) 제주도 큰곳의 맞이는 초신맞이, 일월맞이, 불도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삼공맞이, 시왕맞이 등으로 맞이하는 큰곳에서 모두 7개가 존재하며 다른 맞이에도 이러한 성격이 확장 가능한가는 재론할 사안이다.

개연성이 있다. 그러한 본풀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안당말미> 또는 <안당제석말미> 존재에서 찾을 수 있겠다.<sup>11)</sup> 《천궁맞이》에서 <안당말미>를 했다면 맞이와 본풀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해명되리라 예측된다. 제주도 맞이가 소중하고 맞이와 본풀이의 상관성은 제주도 지역에서 고향으로 간직하고 있는 점을 다시금 환기하게 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하위의 개념이다. 상·하위의 위계 관계가 분명해졌다.

큰굿은 전반적 신의 종합의례이다. 개별신의 종합의례는 맞이이다. 개별신의 종합의례는 맞이이므로 이러한 개별신 영신 의례는 큰굿을 구성하는 구체적 단위이다. 《불도맞이》, 《초공맞이》 등이 모여서 큰굿을 결성한다. 서울굿에서 내림굿을 하거나 새남굿을 할 때에 진오귀굿과 내림굿이 결합하거나 새남굿에서 안당사경맞이와 진오귀굿을 병행시켜 전개하는 것도 이러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불도맞이》는 큰굿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거행되기도 한다. 서울굿에서 사경제(四經祭)가 여러 날에 걸쳐서 행하여질 때에 <천궁맞이>가 단독으로 거행되는 것과 비교된다.<sup>12)</sup> 《불도맞이》에서 서두와 결말을 갖추어서 굿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으며 서울굿이나 여타 지역의 굿을 이해하는데 제주도 굿이 소중한 준거가 되는 점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도맞이》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의례이다. 신의 내력을 서술하는데 생명을 주는 신과 생명을 빼앗는 신의 내력을 균등하게 말하고 인간에게 질병을 주는 신도 동시에 말한다. 그러한 신의 총체적 제의가 곧 《불도맞이》라 할 수 있다. 앞에 《불도맞이》에서 모셔지는 여러 신격의 사례가 거론된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무속에서 모든 신은 균등하게 모셔져야 할 이유가 있다. 어느 한 신이라고 소홀하게 모시면 온전한 대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해꼬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만신전(pantheon)의 성격이 부각된다.

《불도맞이》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맞이와 유사한 의례를 비교하는 것이 긴요하나 더욱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이른바 <물괘심>, <삼심괘심>, <괘심반침>이라고 병칭되는 삼신에 관한 의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의례는 굿은 아니고 일종의 치성의례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녀자에게 아이를 점지하게 하거나 아이가 순산하기를 기원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에 이와 같은 의례를 거행한다. 《불도맞이》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거행되는 것임은 다시 부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육지의 <삼심괘심>의 주체는 <안당제석말미> 또는 <제석본풀이>의 삼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삼신에게 아이의 생명을 가피토록 하고 무병장수를

11) <안당말미>는 진오귀굿의 <말미>와 대비되는 두 가지 본풀이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안당말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상순 만신의 제보에 의한다. 이에 관한 글은 김현선, 2003. 9. 24, 「<안당말미>와 <말미>의 존재 의의」, 무속연구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12)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上卷, 屋號書店. 이 자료집에 비교적 초창기 안당사경맞이를 비롯한 사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다. 안당사경제의는 흔히 천궁맞이, 안당사경맞이, 산마라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다. 굿의 체계적인 절차를 알 수 있는 단서이다.

기원하는 것이 이 제의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불도맞이>>는 생불할망 또는 불도할망인 명진국 따님애기에게 역시 생명의 탄생, 축진, 무병 등을 기원하는 것이 이 제의 절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제주도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불도맞이>>는 그 자체로 이해되지 않는다. 제주도의 굿은 고고학적 단층으로 비유하자면 맨 밑바닥의 퇴적층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생명력을 분출하고 있으므로 맨 밑바닥에서도 여러가지 잊지춤과 지속적으로 교섭하며 생명을 나누고 있는 단층이라고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제주도 굿의 독자적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는 육지의 유사한 용례와 견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굿은 제주도굿 이해의 절대적 준거가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제주도 굿과 여타 지역의 굿은 온전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

### 3.<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투쟁과 의미

<삼승할망본풀이>는 <<불도맞이>> 제차에서 모셔지며, 생산신인 불도할망 또는 생불할망에 대한 내력 서술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

산신의 내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신의 생산을 방해하는 신격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불할망에게 도전하는 신은 구삼승할망과 마누라신이다. 구삼승할망은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신이고 마누라신은 흥역인지 마마인지 그 신의 성격이 모호하다. 속신에서 흥역을 작은마누라라고 하고 마마를 큰마누라라고 했다고 하니 서신국 마누라 대별상은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sup>14)</sup>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살펴보면서 이 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을 규명하기로 한다.<sup>15)</sup>

- (1) 동해용왕이 서해용궁 따님하고 친정배필을 맺다.
- (2) 둘 사이에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었다.
- (3) 접을 해본 결과 명산대찰에 정성을 드리면 자식을 얻는다는 말에 동해용왕은 관음사에 가서 석달 열흘 백일간 기도를 올렸다.
- (4) 용왕부인이 태기가 있어서 딸아기를 낳았다.
- (5) 딸아기를 귀엽게 키운 결과 부모에게 여러가지 죄를 지었다.
- (6) 아버지 동해용왕이 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 (7) 동해용왕부인이 딸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 남편을 달래서 동이용궁 쉼터에 아들을 불러다가 무쇄설캅을 만들어서 동해바다에 띄우자고 했다.
- (8) 동해용왕부인은 동해바다에 띄우려고 하는데 따님이기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9) 부인이 인간에 가서 생불왕을 맡으라고 했으며 아이를 잉태시키고 행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 (10) 아버지의 불호령으로 따님애기는 행복시키는 방식을

13) <삼심검심>과 <불도맞이>, <불도할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그 개요를 말하자면 전자는 일종의 치성의례이다. 후자는 종합적 제전인 큰굿에서 하는 의례이면서 당에서 하는 의례이다. 규모나 기회는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제주도의 당에서 하는 비념과 비교되는 소중한 의례라고 생각한다.

14) 현용준, 2003, 『한라산 오르듯이』, 59쪽.

15)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64~139쪽. <불도맞이>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데, <삼승할망본풀이>는 실제로 108~116쪽에 수록되어 있다.



- 알아보지 못하고 석함에 담겨 버려지게 되었다.
- (11) 석함에다 '임박사가 열어보라'고 글자를 써 놓았다.
  - (12) 석함은 바닷물에 버려서 떠다니다가 처녀 물가에 떠올라 임박사에게 넘겨졌다.
  - (13) 임박사가 발로 툭 차서 보니 절로 잠긴 자물쇠가 열리게 되었다.
  - (14) 임박사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은 인간에 생불왕이 없다고 해서 생불왕 임무를 맡으러 왔다고 하며 임박사 집으로 안내된다.
  - (15)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임박사 집으로 안내되고 어머니가 가르쳐 준대로 임박사 부인에게 잉태를 시켰다.
  - (16)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만삭이 되었는에도 어디로 해산시킬 줄 몰라 당황하게 되었다.
  - (17) 열 두 달이 넘어가자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겁이 나서 은가우보 산모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숨숨이 꿇고 아이를 꺼내려고 하다가 산모와 아이가 위태롭게 된다.
  - (18) 겁이 난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임박사의 집을 빠져나와 처녀 물가로 달려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하며 수양버들 밑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다.
  - (19) 임박사는 아이와 부인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금백산에 올라가 칠성단을 차려 놓고 요령을 흔들면서 옥황상제에게 신원했다.
  - (20) 옥황상제는 지부사천대왕에게 그 이유를 알아서 보고 하도록 했다.
  - (21) 옥황상제는 지부사천대왕에게 인간 세상에 생불왕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니 지부사천대왕은 명진국 따님애기를 추천했다.
  - (22) 옥황상제는 금부도사로 하여금 명진국따님애기를 데려와서 보이니 옥황상제가 명진국 따님애기를 시험하게 된다.
  - (23) "총각머리 등에 진 아기씨가 어찌 대청 한칸으로 오느냐?"고 묻자, "남즈 여즈 구별은 여태지 지금인데 어떤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부르느냐?"고 하자 옥황상제가 명진국 따님애기를 생불왕으로 나가게 한다.
  - (24) 명진국 따님애기는 아이 잉태시키는 법과 아이 행복시키는 법을 익혀서 생불왕으로 내려온다.
  - (25) 명진국 따님애기는 옥황상제의 분부대로 사월초파일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 (26) 처녀 물가에 오니 수양버들 밑에 한 처녀가 울고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듣게 된다.
  - (27)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인간세상에 생불왕으로 왔다가 실패한 사정을 말하자 명진국 따님애기가 자신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인간 생불왕으로 왔다고 말한다.
  - (28)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명진국 따님애기에게 매질을 한다.
  - (29) 명진국 따님애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판가름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 (30) 두 아가씨는 옥황상제에게 각각 등장을 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 (31) 옥황상제는 청계왕과 벽계왕을 불러서 꽃씨 두 방울을 내어주어 서천 서역국 계모와 살왓디에 꽃씨를 심겨서 번성하는 쪽이 생불왕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 (32) 두 처녀는 각각 모래밭에 나가서 꽃을 피웠으나 옥황상제가 심사를 나간 때에 이미 승부가 났다.
  - (33)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꽃의 뿌리가 하나이고 가지도 하나이고 순도 하나 겨우 돌아서 이물어가는 꽃이고 명진국 따님애기의 꽃은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 5천 6백 가지로 번성하는 것이었다.
  - (34) 옥황상제는 동해용궁 따님애기를 저승할망이 되게 하고 명진국 따님애기는 번성꽃이 되었으므로 삼승할망으로 들어서도록 했다.
  - (35)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명진국 따님애기의 꽃 가지를 하나 오도둑 꺾어서 가졌다.
  - (36) 명진국 따님애기가 대들자 아기가 태어나서 백일이 지나면 경풍, 경세 등 온갖 병을 걸리게 하겠다고 말한다.
  - (37) 명진국 따님애기는 이를 달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적삼, 머리, 아기 엽는 멜빵, 폐백, 음식 등을 동해용궁 따님애기에게 차려줄테니 화의하자고 해서 화의를 이루고 오늘날 아이 낳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
  - (38) 두 처녀는 작별잔을 나누고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저승으로 명진국 따님애기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 (39) 명진국 따님애기는 생불왕이 되어서 아양안동누각을 짓고 그곳에서 삼천장의 벼룻돌과 번성꽃과 환생꽃을

귀어서 하루 만 명씩 잉태시키고 해산한다.  
(40) 명진국 따님애기는 초사흘, 초이레, 열 사흘, 열 이레,  
스무 사흘, 스무 이레에 만민 자손의 위함을 받는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세상의 생불할망이 누가 되는가에 신화의 핵심이 가로놓여 있다. 생불할망은 인간의 구예문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열 달이 차서 구예문을 통해서 행복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신이다. 또한 주어진 생명을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생불할망의 몫이 되기도 한다. 생불할망은 하나가 아닌 여럿인데 대표적으로 천왕불도할망, 지왕불도할망, 인왕불도할망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불도맛이 상에 놓인 세 송낙은 바로 이들을 상징한다. 생불할망은 한쪽 손에 번성꽃과 다른 한쪽 손에 환생꽃을 들고서 이승의 생불할망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생불할망의 후보자는 본디 둘이었다고 전한다. 첫 번째 후보자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동해용왕과 서해용왕따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씨이다. 이 아기씨는 잉태과정에서부터 애로 사항이 있었다. 동해용왕이 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불수록 불공을 드린 뒤에 이 아기씨가 태어났다. 극진한 정성을 드린 뒤에 태어났으나 이 아기씨의 행실은 온전치 못했다.

한 살 적엔 어머니 젓기슴을 때린 죄, 두 살 적엔 아버지 수염을 뽑은 죄, 세 살적엔 넣어 놓은 곡식을 흘뜨린 죄, 네 살 적엔 조상 불효, 다섯 살 적엔 친족 불화, 여섯 살 적엔 존장불효<sup>16)</sup>

일가친척과 부모 모두에게 화목을 깨는 행위를 했다. 부모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축출의 대상 요건이 된다. 집안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온전함을 갖지 못하므로 결국 일가는 동해용궁 따님애기를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해용왕부인은 급하게 축출되는 아기씨에게 인간 세계에 가서 생불왕을 맡으라고 하면서 잉태시키는 법을 일러준다. 생불을 주는 법과 환생하는 법을 묻자 부인은 생불시키는 법만 일러주게 된다.

아방 몸에 흰피 석 들 열흘, 어멍 몸에 검은피 석 들 열흘, 아음 들 열 들 준삭 채왕 행복시라<sup>17)</sup>

생불을 주는 법은 이해했으나 행복시키는 법은 알지 못하고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축출을 당하게 된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비밀을 알고서 무쇠석함에 담겨져서 여성이 축출되기에 이른다. 바닷물에 버려져서 생불의 비밀을 안 아기씨는 처녀 물가에 올라서서 임박사에게 발견된다. 아기씨의 도착지점이 곧 처녀 물가의 임박사 집이었기 때문이다.

무쇠설갑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모습이 신비롭게 묘사되어 있다. ‘앞니망에 햇님이며/ 뒷니망에 들님이여/ 양단독지 금산 사별 오송송이 백인 듯흔 아기씨’라고 되어 있다.<sup>18)</sup> 곧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면모가 동일하게 발견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동요나 본풀이에서 귀하고 신성한 존재를 말할 때에 이와 같

16) 현용준, 1980, 앞의 책, 108쪽. 번역해서 인용한다.

17) 위의 책, 109쪽.

18) 위의 책, 109쪽.

은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는 관용구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sup>19)</sup> 일월성신의 아름다움으로 신성한 존재가 빛을 발휘하게 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임박사는 어떠한 관계인가? 신과 신성한 면모를 인지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다. 신은 바다에서 떠들어온 존재이고 사제자는 장차 아이를 갖게 되는 생불신의 단골이라 하겠다. 무쇠석함에 버려진 신성한 존재를 발견하는 인물은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데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임박사 역시 이러한 전통을 잇고 있다.<sup>20)</sup>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인간세상에 생불왕이 없어 자신이 그러한 임무를 맡고 왔다고 하면서 신과 단골의 관계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따님애기는 생불을 주는 방법을 쉽사리 성취한다. 그러한 방법은 생명의 나라 신의 나라에서 이미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불을 주는 것만 알았을 따름이고 생불 이외에 행복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처방을 한다.

열두 돌이 지나 간난 애기어명 죽을 스경 돼여 간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겁흔지망에 은근새 받아들언 애기어명 누 단즈드랭이 숨숨이 굶어놓고 아기 행복 시겨가니 구덕 잃고 거 일흐게 돼여가난 동이용궁 따님애기 겁난 지망에<sup>21)</sup>

이러한 행복 방법은 인간의 행복법이 아니고

신의 행복 방법이다. 신화에서 신성한 존재가 태어날 때에 하문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고 어머니의 옆구리를 뜯고서 나오는 전례가 있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서 삼팽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화소가 등장한다.<sup>22)</sup> 신들의 특별한 탄생을 말하는 요소가 인간에게 적용되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오른쪽 겨드랑이를 가위로 솜숨이 뜯어낸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이다. 사람은 신과 다르기 때문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처녀물가에 가서 수양버들 밑에 앉아서 울음을 우는 것은 인간의 행복 방법을 알지 못해서이다. 임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제자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금백산에 칠성단을 쌓고 천양낙화 옥술발을 흔들면서 옥황상제에게 신원을 한다. 자신의 생불신이 커다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옥황상제는 지부사천왕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생불할망은 두 번째 후보자가 마련된다. 인간 가운데 특별한 면모가 있으니 명진국 따님애기는 부모 내력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아방국은 서카여리 어명국 서카무니롭서 인간에 명진국 따님애기가 솟아나 탄생을 보건데 뺨인년 뺨인월 뺨인일

19) 제주도의 본풀이나 동요에서 이러한 관용구가 흔하게 발견된다. 관용적 표현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본풀이에서 의미하며 쓰이는 것과 상징하는 바는 모두 다르다.

20) 이러한 전통은 구전과 문전 양쪽에서 발견된다. 구전 가운데 <퀘웨깃당본풀이>가 적절한 사례이다. 바다에서 돌아온 퀘웨깃도를 단골이 맞이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문전 가운데 <석탈해신화>가 적절한 범례이다. 바다에 무쇠석함이 들어오자 바닷가에서 노구(老嫗)가 맞이하는 것도 동일한 사례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도할망이므로 가임을 원하는 집안 사람인 임박사가 이의 상대가 된다는 점이다.

21) 현용준, 1980, 앞의 책, 110쪽.

22) 이러한 신화소의 전례는 「알영신화」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신화의 상징적인 대목으로 원용된다.

뱅인시 삼진 정월 초사흘날 솟아나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방답 화목하고 지른 물에 드리노아 월천 공덕하고 혼착 손엔 번성꽃 흐착 손엔 환생 꽃 거느려, 이 아끼씨 생불왕으로 들여세우기 어찌흠네까?<sup>23)</sup>

명진국 따님애기와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출생 과정에서 판이한 징후를 지니고 있다. 핵심은 일가방답에 화목하는가 불목하는가 하는 데 있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일가방답에 불화해서 쫓겨난 존재라면 명진국 따님애기는 일가방답에 화목하기 때문에 생불왕으로 천거되었다고 하겠다.

명진국 따님애기가 생불왕으로 천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가방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월천공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의 소종래는 불교적 속성에 가깝다. 따라서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제주도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점에 견주어서 엄밀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옥황상제 지부사천왕 등의 위계속에서 '서카여리'와 '서카모니'가 관련되기에 수직적 신관념에서 비롯된 존재이다. 게다가 사월 초과일날에 명진국 따님애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서 이러한 특성은 발견된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옥황상제에게 일정한 시험을 당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어머니에게서 경험과 고난 없이 터득한 것과 다르다. 그 시험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 아끼씨가 어찌 대천한간으로 들

어가겠느냐?”

명진국 따님애기 말을 흐뵈

“소녀도 아릴 말씀 있으리다. 남쪽 여주 구별은 여태지 지금인디 어떤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부릅데가?”<sup>24)</sup>

명진국 따님애기의 능력을 시험하는 문답법이다. 문답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전통적이며, 문답은 대체로 수수께끼로 진행되는 것이 예시다. 옥황상제는 총각머리를 한 남성적 면모와 처녀아끼씨를 구분하고자 했다. 마루로 들어서는가 묻는다. 이에 대해서 명진국 따님애기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여태껏 하면서 어찌해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부르냐고 반문한다. 옥황상제는 요망진 처녀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생불왕을 명령한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행복을 시키는 원리를 옥황상제가 알려주는데 ‘아기어멍 늦인 빼 베풀우고 베풀 빼 늦추왕 열두구에 문으로 행복시키라고 말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생불을 주는 과정만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명진국 따님애기는 생불을 주는 것과 행복시키는 것도 일러준다.

명진국 따님애기가 하늘의 옥황상제로부터 생불왕의 신적 직능과 미립을 아는 것과 다르게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자신의 어머니인 서해용궁 따님에게 생불왕을 할 수 있는 미립을 아는 것보다 좋은 비교점이 된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생불왕의 후보자 두 신이 서로 특징을 가지면서 마침내 만나게 된다.

임박사의 부인과 자식을 곤경에 빠뜨리고 버

23) 현용준, 1980, 앞의 책, 112쪽.

24) 위의 책, 112쪽.

대립소 \ 후보신	동해용궁 따님애기	명진국 따님애기
순서	앞	뒤
공간	수평적	수직적
속성	자연	문화
원천	서해용궁 따님 (어머니)	옥황상제 (지부사천왕)
생명의 근원	바다	하늘
생불능력	생불주는 것	생불주는 것과 해복시키는 것

드나무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명진국 따님애기는 행색을 꾸며서 등장한다. 그 행색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볼 수 있다.

할마님 행차 출리뒀 만산족도리에 남방스주 저구리 북방스주 봉에바지 대홍대단훗 단치메 물맹지 단속곳에 아방국 도업훗던 스월초파일날 인간으로 노각성 조부줄로 신느려 멩진국을 가다보니 ...<sup>(하략)</sup><sup>25)</sup>

명진국 따님애기는 행색을 화사하게 차리면서 사월 초파일에 아방국이 이 세상에 나오듯이 ‘노각성 조부줄’로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온다. 따님애기가 그 줄을 타고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올라갔다가 다시 그 줄로 지상에 내려오고 있는 셈이다. 치장 역시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전혀 달라서 호사롭게 여러 비단을 꾸며서 나온다고 하겠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무쇠설갑에 담겨 바다에 띄워져서 무쇠설갑에서 나와 앞니망과 뒷니망 및 양단독지에 해, 달, 금성, 셋별 등이 비추었던 것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는 생불왕의 직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다. 대립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인간 세상에 먼저 생불왕으로 오게 된 존재이다. 집안의 반목과 불화의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박사의 거처를 향해서 온 존재이고 생불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주자가 주어진 임무를 맡는 것이 신화의 법칙이기도 하나 후래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지명한 존재이나 후래자임이 분명하다. 선주자와 후래자의 생불왕이 있으나 하나의 세상에 생불왕이 양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 사이에 쫓 피우기 경쟁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는 공간적 징표에서도 대립적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무대 배경은 곧 바다이다.

25) 현용준, 1980, 앞의 책, 113쪽.

바다 위에서 무쇠설갑에 갇혀서 생명인 생불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존재가 곧 동해용궁 따님애기이다. 이에 견주어서 명진국 따님애기는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올라갈 때에 ‘노각성 즈부줄’로 올라갔다가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도 ‘노각성 즈부줄’로 내려오는 존재이다. 곧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존재이다. 두 신격의 공간적 대립은 제주도 본풀이적 전통에 입각해서 보아야만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먼 바다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해오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이에 대한 궁극적 대답이 있는데 제주도 본풀이 뿐만 아니라 한국신화의 전반에 이러한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sup>26)</sup> 천손강림과 표착 신격의 중요한 대답이 이처럼 특별한 신격의 대답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신화적 사고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화의 주인공인 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점인데 그것이 공간 관념으로 신의 출생지와 관련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는 그 점을 대립적으로 제시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자연적 속성을 우세하게 지닌다.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이 대체로 자연적 속성을 지닌다. 자연은 범주와 개체의 관계를 예시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해, 달, 별 등의 증후를 지니면서 일가 방

답에 불목했다고 하는 것은 집단의 속성을 거부한 것이고, 명진국 따님애기가 집단과 개개인을 중시하고 위계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 속성을 암시하며 명진국 따님애기가 등장할 때에 화려한 문화적 수식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sup>27)</sup>

생명의 원천을 누구에게서 가져오는가 하는 점도 특별하게 대답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어머니인 서해용궁 따님에게서 생불을 시키는 원천을 습득한다. 서해용궁 따님에게서 생불을 주는 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서해용궁 따님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여성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뜻이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옥황상제에게 받았으니 남성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성에게서 받은 것은 온전하다. 생불을 주는 것만 아니라 해복을 시키는 것까지 온전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훨씬 생명을 인지하고 전달하는데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남성을 내세운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남성에게서 생명의 원천을 받고 있으며 동해용궁 따님애기보다는 우월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본풀이 전체에서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26) 제주도신화에서는 공간 대립이 흔히 셋으로 나타난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신격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신격 및 바다에서 떠올러오는 신격 등이 그것이다. 솟아오르는 신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당신본풀이」에 세 번째 신격은 흔하게 등장한다.

27) 자연과 문화의 대립적 면모에 대해서는 레비스트로스가 논의한 것에 의해서 원용한다. C. Lévi-strauss, 1963, 『Totemism』, Boston : Beacon Press, pp.16~17. 이러한 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매우 유용하고 신화학적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가정적 논의가 여기에 들어 있다. Lévi-strauss의 논의는 그의 신화학적 논의가 집약되어 있는 다른 저작에서도 발견된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동해용궁따님 얘기는 바다에서 왔으며 자기 스스로 예정처를 정하고 마침내 나타났다. 그것이 실패해서 임박 사에게 거부되고 임박사는 금백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빌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전한 생불왕 노릇을 했으므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나타났다. 생명의 근원이 바다인 물에서 왔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별점이다.

동해용궁 따님얘기는 생명을 주는 것만 알고 있을 따름이고 명진국 따님얘기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것 모두를 알고 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소중한가 아니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보존하는 것이 소중한가 하는 점은 두 여신 후보자의 구실을 가르는 결정적 대립소이다. 생명을 온전히 탄생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 생명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여신은 이러한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생불왕 또는 생명을 담당하는 불도가 둘이어서는 본풀이가 온전히 성립될 수 없다. 둘 사이의 대립은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임박사의 부인을 해복시키지 못한 동해용궁따님얘기와 임박사의 원정에 의해서 발탁된 명진국 따님얘기는 충돌하게 된다. 위에서 예시한 두 후보신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대결을 벌이게 되어 있다. 두 신은 본격적으로 대결한다.

동해용궁 따님얘기는 명진국 따님얘기와 만나서 물리적 충돌을 한다. 생불왕이 자신이라고 생

각했는데 생불왕이 또 다르게 설정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명진국 따님얘기는 물리적 충돌이 옳지 않다고 예견하고 옥황상제 앞에 가서 진정한 생명을 다스리는 생불이 누구인가 판가름하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 동해용궁 따님얘기가 이에 수긍하고 ‘노각성 즈부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앞에서 일정한 내기를 받게 된다.

신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들 사이의 내기를 벌이는 것은 제주도 신화 뿐만 아니라 한국신화 더 나아가서 세계신화의 기본적 양상이라 하겠다. 내기의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너이털 얼굴 보는 디는 어느 누게 구별할 수 엇어지고 생불환생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할 수 엇어진다. 천계왕을 불르라 벽계왕을 불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어 주건 서천 서약국 계모살왔다 꽃씨 두 방울을 싱경 꽃번성 허는대로 생불왕을 구별허리라”<sup>28)</sup>

옥황상제는 동해용궁 따님얘기가 모두 생불왕의 자격을 갖추어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왕을 불러서 ‘꽃 피우기 경쟁’을 하도록 한다. 꽃씨 두 방울을 심어서 꽃이 활짝 번성하게 되면 진정한 생불왕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생불왕을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꽃을 피워서 결정하는 일은 우리의 창세신화에서도 발견된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나 함흥의 <창세가>를 비롯해서 전세계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한 요소가 이 <삼승할망본풀이>

28) 현용준, 1980, 앞의 책, 114쪽

에서도 지속적으로 변용되고 확장되어서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sup>29)</sup> 따라서 동일한 신화소의 변형이라고 판단된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전통이 확인되면서도 차이점은 내기를 제안하는 쪽이 싸우는 쪽이 아니라 싸움을 중재하며 준별하고자 하는 쪽이라는 사실이다. 창세신화에서는 싸움을 중재하는 인물이 없이 당자들이 유일한 신격이므로 부득이하게 싸움하는 인물이 대결도 하고 내기도 제안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삼승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가 신화적으로 위계가 다르고 창세신과 생산신이 다른 내력이 여기에 있다.<sup>30)</sup>

신화소가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문면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한다.

계모살았디 꽃씨를 드렸더니 고장 번성하는 것이 동해용궁 따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도 웨불리 가지도 웨가지 송애도 웨송애 금뉴울꽃 돼고 명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불리요 가지 송엔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웨난 옥황상저이 꽃빈장을 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하웨

“동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 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사곡 명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이 돼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사라”<sup>31)</sup>

동해용궁 따님애기의 꽃은 뿌리도 외뿌리이고 가지도 외가지이고 송이도 외송인 금뉴울 꽃으로

된다. 명진국 따님애기의 꽃은 뿌리는 외 뿌리이고 가지 송이는 사만 오천 육백 가지로 번성꽃이 된다. 생명은 이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약동하면서 활발하게 커가는 것이다. 생명은 시들어서 소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여럿으로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자의 것이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는 그 점에서 같아지고 있으며 꽃으로 상징되는 차별성을 갖는다.

옥황상제가 ‘꽃빈장’을 간다고 했다. 꽃자랑을 보러 왔다가 ‘검뉴울꽃’과 ‘번성꽃’을 보고서 두 신격에게 각기 임무를 부여한다.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이물고 시드는 꽃을 피웠으므로 결국 저승할망의 임무를 부여하고 명진국 따님애기는 번성하고 약동하는 꽃을 피웠으므로 인간 할망으로 들어서게 했다. 저승할망, 구삼승할망, 구삼신, 구할망, 구천낭할망 등으로 병칭되는 신이고 인간할망, 삼승할망, 생불왕, 불도할망 등으로 병칭되는 신이 갈라지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보편적 면모 속에 존재하는 속임수(trick)가 없다. 꽃이 잘 피지 않은 신의 꽃이 활짝 핀 신의 것을 꺾거나 훔쳐서 결국 신 싸움의 승리가 세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요소가 없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판도 장악을 놓고서 이와 같은 신화소가 등장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창세신화가 아니며

29) 이 신화소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작업이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현선, 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김현선, 2002, 앞의 책.

30) 예외적으로 「천지왕본풀이」의 각편 가운데 『풍속무음』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처럼 심판자의 제안에 의해서 내기 시합을 하는 각편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며 두 본풀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31) 현용준, 1980, 앞의 책, 114쪽.



로 굳이 동일한 신화소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므로 색다른 해결법을 필요로 했다고 인정된다.

이승과 저승은 엄연히 다르고 이승과 저승의 할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승은 생명이 지속되어야 하기에 번성꽃이 필요하고 저승은 이승의 생명이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늬울꽃이 필요하다. 저승신은 이승에서 필요하지 않다. 저승의 생산신인 저승할망은 이승에서 못다 이룬 생불왕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승 사람의 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해야 하는데 그점을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성식을 발딱 내명 멩진국할망 꽃을  
 상가지로 오독독 거꺼 앓으난, 인간할마님이 말을 ㅎ뵈  
 “무사 나 꽃 상가질 거끄느냐?”  
 동이용궁 따님애기 말을 ㅎ뵈  
 “인간에 생불을 주국 환생을 주영 석 돌 열흘 백일이 뵈민  
 정풍 정세 느진듯 부튼듯 열두 풍문을 주영 얻어 먹겠노라”  
 인간할망이 말을 ㅎ뵈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모습ㅎ기 어찌ㅎ겠느냐? 내 인간에  
 느려상 생불을 주민 저승걸레 아홉자도 걸어주마 걸레삼  
 승 업게 삼승 저 인정 걸어주마 아기어멍 현페머리 뚝든 적  
 삼 뚝든 치매 저인정 걸어주마”  
 “어서 걸랑 그리ㅎ자”<sup>32)</sup>

인간할망 내기에서 이기자 저승할망이 이에 대한 반감으로 번성꽃의 윗가지를 꺾게 되면서 새로운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삼할망이 자기는 저승으로 가게 되지만, 이승에서 사람들에게 대

접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을 세우기 위해서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이러한 행실을 하게 된다. 어린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이처럼 모진 일을 한다. 그러자 이에 대해 맞서는 대응을 하니 그것이 곧 저승할망에게 일정한 예우를 하는 것이다.

예우의 핵심은 저승할망에게 ‘걸레’라는 멜빵을 주는 것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 모든 존재에게 ‘인정’을 바치는 것이다. 저승할망, 업게 삼승, 걸레삼승 등이 곧 이들이다. 업게 삼승은 업저지 또는 아이업게의 수호신이고 걸레삼승은 아이를 업는 멜빵의 수호신이다. 저승할망은 이승할망에게 일정한 지분을 요구하고 이승에서 일정한 예우를 갖추도록 요구한 셈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 여러 신들이 동거하고 있다. 주신은 생불왕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처럼 다면적 신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승할망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저승할망을 비롯해서 걸레삼승, 업게삼승 등이 동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긍정적 혼합주의로만 볼 수 없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삼승할망본풀이>에 관한 구조적 해명이 필요하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는 본질적인 대립이 있다. 그것은 토착신과 외래신의 충돌이다. 제주도에서 섬기는 신인 생불왕과 외지에서 들어와 자리잡은 신인 생불왕이 갈등하면서 둘 사이에 자리의 전도가

32) 현용준, 1980, 앞의 책, 114~115쪽.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에서 다툼의 핵심은 세상을 만들거나 차지하게 된 신이 만든 세상을 탐내거나 차지하기로 한 세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는 것에 있다.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나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이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미륵이 창조한 세상을 후래자인 석가가 차지하려고 하거나 대별왕이 맡게 될 이승을 동생인 소별왕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삼승할망본풀이>의 갈등을 이해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위에서 살핀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의 갈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임이 확인된다. 제주도의 고유신격과 외지의 외래 신격이 다투다가 고유신격이 밀려났으므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승이 아닌 저승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주인이 하인이 되었으므로 하인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불행한 걸레 삼승이나 업계 삼승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이치가 이와 같다면 이승과 저승의 할망은 제주도의 신들이 겪는 신화적 역사를 기록한 구비문서임이 쉽사리 드러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신들의 혼합 방식이 <삼승할망본풀이>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본래 있었던 신이 다른 곳에서 온 신에 의해서 축출되는 과정을 본풀이에다 구비로 정착시켜서 전승하고 있는 셈이다. 본풀이는 구비전승하면서 신들의 변천 역사를 담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당신 본풀이에서는 신들의 갈등 역사가 선명하게 발견되었는데 일반신본풀이인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 것은 중대한 발견으로 이해된다.

토착신이 자신의 신직을 외래신에게 빼앗기고 저승의 삼신으로 물러서는 일은 토착신과 외래신의 신적 갈등을 드러내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갈등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자기의 자리를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빼앗겨 저승으로 밀려난 것은 본풀이를 전승하는 사제자 집단의 인식과 관련된다. 현재 주신의 위치에 있는 신이 신직을 차지해서 현재의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일치한다.

본풀이가 구비서사시로 제주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비서사시는 정치집단의 승패를 구전으로 기록하는 구비역사의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3)</sup> 동해용왕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의 갈등은 제주도 토착세력과의 연대과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제주도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임박사이다. 임박사는 신맛이를 하는 주체이고 신을 숭앙하는 존재이다. 처음에 동해용왕 따님애기와의 관계는 신성한 것이었다. 외지에서 바다를 건너온 존재가 신성한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주도 구전서사시 특히 당신본풀이에서 보편적인 서사문법이다. 여성이 바다를 건너와서 제주도 남성과 혼인하는 것이 <삼성신화>나 당신본풀이에서 흔하게 구현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농사를 할 수 있는 곡종을 가져다주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남성의 수렵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자손을 퍼뜨리는

33) 조동일, 1977, 앞의 책, 이 글을 통해서 두 인물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구실을 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 방식을 원용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동해용왕 따님애기를 신으로 맞이하여 이를 섬기는 형태로 바꾸었다. 게다가 인간에게 생명을 점지시켰다고 해서 생명의 근원자로 인식하고 나아가서 풍부한 생생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들의 연대가 오래가지 않았다. 문제는 과도한 생생력이다. 아이를 잉태시키는 신성력만 구사했지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 자체의 지배력의 해법을 갖지 못했다. 아이를 행복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의 이면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주술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치력이 필요한데 토착 신앙집단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인간에게 불신되기에 이른 것이다. 신성성과 주술력은 신들의 탄생 방식으로 아이들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옆구리를 뜯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신의 질서로는 가능하나 인간의 합리적 성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

토착숭앙집단은 새로운 신앙심을 요구했다. 그것이 곧 명진국 따님애기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금백산에 올라가서 칠성단을 쌓고 하늘의 옥황에다가 빌었다고 하는 것은 재래의 주술관념으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신앙의식이고 게다가 이들의 존재는 외래집단인 점에서는 동해용왕 따님애기와 같지만 신앙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옥황상제, 지부사천대왕, 명진국 따님애기 등으로 위계화된 것은 이들 집단이 전혀 다른 방식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신의 소종래로 본다면 도교, 불교 등으로 혼합되어 있으나 단순한 혼합

주의가 아니라 동해용왕 따님애기와 전혀 성격이 다른 신성집단임을 확인하게 한다. 물론 동해용왕따님애기도 동일한 혼합성이 보이나 본질적으로 성격이 부정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니다.

임박사가 새로운 숭앙집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신앙의 노선을 바꾼 것이고 두 따님애기의 갈등은 제주도 신앙사의 성격을 바꾸는 본질적인 사건이다. 앞서서 두 인물의 갈등이 의미하는 바는 구조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명진국 따님애기는 그 성격이 외래종교인 불교에 가깝다. 사월초파일에 지상에 내려오는 현상이나 자신을 석가여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외래신앙집단의 신앙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선주자인 생불할망의 지위를 빼앗고 저승을 관장하는 구삼승할망으로 밀어낸 것은 심각한 패배이다. 후래자인 명진국 따님애기에게 지위를 빼앗겼으나 순순히 패배하지 않았다. 일정 부분의 지위를 요구하면서 패배자로서의 숭앙을 요구했다. 생불할망인 삼승할망의 행세에 적대자로서의 신앙적 지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삼승할망본풀이>에 명기하고 있는 셈이다. 패배자의 역사, 불신되는 고유 신앙의 역사 등을 이렇게 밝혀 놓았다고 하겠다. 패배자의 역사를 구전의 방식으로 구비서사시에 기록한 사례는 세계여성영웅서사시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sup>34)</sup>

<삼승할망본풀이>는 속편을 가지고 있다. 이 승할망과 저승할망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게 되었는가 따지면서 신적에 관한

확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본풀이와 결부되어서 이 본풀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체가 생불할망인 삼승할망이기에 이러한 사건의 지속성 역시 본풀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순차적 지속성은 두 본풀이의 연결된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본풀이가 곧 <마누라본풀이> 또는 <대별상마누라본풀이>로 그것이다. 이 신격 역시 제주도의 고유 신격인가 의심스럽다. 별상신은 본토에서 장군신뿐만 아니라, 천연두신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신은 본토에서 넘어와서 구성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삼승할망, 저승할망, 대별상 마누라의 신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논의하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본풀이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장차 크게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이 본풀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41) 삼승할망이 급히 해산을 시키고자 서천강 다리에 가다가 마마신인 대별상의 행차와 만난다.
- (42) 대별상은 인물도감책과 위의를 차리고 만민 자손에게 마마를 시키려고 내려오는 길이였다.
- (43) 삼승할망은 길을 비키고 공손히 꿇어 앉아서 생불할 자손에게 곱게 얼굴로 ‘호명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 (44) 대별상은 무섭게 삼각수를 거스리고 사내 대장부의 길에 여성이라는 ‘새물’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꾸짖는다.
- (45) 삼승할망은 분을 참고 있으나 교만한 대별상은 삼승할망의 자손에게 혹독한 호명을 시켜서 뒤용박을 만든다.
- (46) 삼승할망은 생불꽃 하나를 가지고 대별상 부인인 서신국 마누라에게 잉태를 시킨다.
- (47) 서신국 마누라는 열 두 달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자 사경을 헤매게 된다.
- (48) 서신국 마누라가 남편인 대별상에게 삼승할망에게 빌어 보라고 사정을 한다.
- (49) 대별상은 사내 대장부로 어찌 여성을 청할 수 있겠는가 고민했으나 도리 없이 청하게 된다.
- (50) 대별상 마누라는 흰망건, 흰도포, 마부 등을 갖추어서 삼승할망을 찾아와 빌었으나 삼승할망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 (51) 삼승할망은 대별상에게 머리 깎고, 굴송낙, 굴장삼, 맨보선 바랑으로 와서 땃돌 아래에서 빌라고 한다.
- (52) 대별상은 고깔, 장삼, 버선 등으로 꾸미고 와서 땃돌 아래 엎드린다.
- (53) 삼승할망은 준절하게 나무라고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를 놓으라고 한다.
- (54) 삼승할망은 서천강의 명주 다리를 건너서 대별상의 집으로 행차했다.
- (55) 서신국 마누라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나 삼승할망이 허리를 두어 번 쓸어내려서 구에문이 열리고 해산하게 된다.
- (56) 오늘날 불도맞이를 할 때에 무명이나 광목을 깔아 놓고 다리라하여 신을 청하게 된다. 35)

34) 조동일, 1977, 앞의 책, 209쪽.

“동족은 薩歲(sax sis) 또는 薩瑪(sax mags)라는 여성을 민족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여성의 수난과 투쟁을 노래하는 <薩歲之歌>(gal sax sis)를 민족서사시로 전승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내력을 설명한 점에서는 신앙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보면 영웅서사시이고 여성영웅서사시이다.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나 종살이까지 해야 했던 여인 仰香(nyeengx xangh)과 그 가족이 삼대에 걸쳐 겪은 수난을 다루었다. 神鐵을 찾아 寶刀를 만들고, 오랜 내력이 있는 神廟을 얻은 것이 화근이 되어, 적대민족 官兵의 핍박을 받아 가족이 모두 참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라고 되어 있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여성이 민족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비장미를 느낄 수 있으나 서사시가 민족이나 집단의 승패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우리 제주도의 <삼승할망본풀이>가 거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토착세력과 외부세력이 쟁패를 거듭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불도맞이》에서 서천강 연다리를 놓게 된 배경을 해명하면서 <마누라본풀이>를 구연한다. <마누라본풀이>는 신들의 신싸움을 핵심적 소재로 해서 전개된다. 삼승할망은 생불꽃을 주어서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고 대별상은 생불 자손에게 호명할 수 있는 병균의 신이다. 마누라 신이 흥역인지 마마인지 잘 분간이 안되나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어린 아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virus신임을 알 수 있다. 전염력이 강하고 아이의 얼굴에 흉터를 안기는 신이 곧 마누라신이다.

생명의 수호신인 삼승할망과 병균신인 마누라는 우호적이지 않다. 생명을 지키려는 신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별상의 행차를 만나서 마마를 시키러 오는 것을 알고 곱게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처지가 된다. 삼승할망은 불박이로 머물러 있는 신이고 대별상신은 떠돌이로 옮겨 다니는 신이다. 마마신은 육지 무속에서도 떠돌이 신격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 신은 노정기의 공식구를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별상신이 행차를 꾸리는 것도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마땅하다.

대별상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해서 삼승할망이 수호하는 어린 생명들을 무수하게 손상시켰다. 삼승할망의 간곡한 부탁을 무너뜨리고 대별상은 자신의 위력을 입증했다. 삼승할망은 대별상의 부인인 서신국 마누라에게 생불꽃을 주어서 잉태시키면서 사태가 역전된다. 생명을 관장하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순산이 허락되지 않는다. 대별상은 서신국 마누라의 부탁으로 삼승할망에게

벌게 되면서 앞의 사태가 뒤바뀌어서 대별상에 대한 분풀이를 한다.

삼승할망은 대별상이 백의중군하듯이 소복을 하고 찾아온 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굴송낙을 한 중의 모습으로 위의를 차리고 오라고 한다. 인물도감책을 갖고 호사로운 위의를 갖춘 대별상의 자존심을 영락없이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한다. 대별상에게 중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 모든 권능을 버리라는 뜻도 되고 대별상이 떠돌이 신격이므로 그러한 모습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아울러서 삼승할망은 대별상에게 서신국 마누라의 해복을 시키는 제의적 장치를 요구한다. 그것은 본풀이와 《불도맞이》의 의례 절차가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약 관계로 된다. 곧 서신국 마누라가 앉고 있는 집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천강이 있는데 그 다리를 넘는 무명으로 된 다리를 요구한다. 《불도맞이》에서 핵심적 절차 가운데 하나인 맞이의 <서천강연다리> 놓기가 이 때문에 비롯된다. 신의 요구가 제의의 중요한 절차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마련된다.

서천강 다리놓기는 질치기 가운데 하나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누라신의 노정기를 뒤집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의가 있다. 흔히 육지굿에서는 <손님굿>이 이와 대조적이다. <손님굿>에서는 손님이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세 분이 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을 건너기 위한 배타기가 있다.<sup>36)</sup> 사공이 무례

35) 현용준, 1980, 앞의 책, 119~121쪽.

하게 요청을 거절하자 손님이 사공의 아들에게 마마를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제주도에서는 뒤바뀌어서 삼승할망과 마누라신과 대별상의 대결담으로 바뀌었다.

삼승할망은 서천강 연다리를 건너면서 대별상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며 곳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서천강 연다리라는 ‘무명다리 놓기’ 의례를 하도록 요구하게 한다. 삼승할망은 손님과 다르게 생명을 해방시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는 특별한 일을 거행한다. 그것이 삼승할망의 생명수호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은 어린 생명에게 질병을 앓게 하는 요소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불도맞이》에 따른 생명 훼손의 주대상이 있으니 그것이 곧 <수레맹망악심꽃꺾음>이다. 악심꽃은 저승할망의 검누울꽃과 또 다르다. 이 꽃은 바로 꽃의 여러 가지 내력을 푸는 다른 본풀이에서 비롯된다. 《불도맞이》에서는 <이공본풀이>를 풀어서 꽃의 내력을 밝히고 수레맹망악심꽃을 꺾는 독특한 소제차를 거행한다. 이렇게 본다면 《불도맞이》에 세 가지 본풀이가 어떠한 관련성 속에 구연되는가 실체를 밝혔다고 인정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신화의 소중한 내력을 이해할 수 있는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다른 외래 신격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저승할망으

로 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풀이이다. 삼승할망이 겪는 생명수호의 절차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외래신과 갈등하는 면모가 부각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하겠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육지나 다른 고장에서 보이지 않는 독자적 본풀이이고 유사한 기능의 신 내력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제석본풀이>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본토의 삼승할망 내력담이라고 할 수 있다. 삼불제석 또는 삼신이 생명을 어떻게 잉태시키고 수호하는가 하는 내력은 <제석본풀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석본풀이>는 생산신의 흔적을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모가 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석본풀이>가 인간의 생명을 수호하는 신임을 방증한다.

무당들이 하는 물괘심, 사심괘심, 껌심받침 등에서 주요 의례 대상자가 되는 신이 곧 제석이다. 삼신에게 빌어서 아이를 점지 받고, 잉태하고, 순산하고,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위의 제의 내용에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제석본풀이>가 구연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sup>37)</sup>

일반 민중들이 섬기는 집안의 여러 신격 가운데 제석오가리, 삼신주머니, 안당제석도가지 등은 <제석본풀이>의 생산신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제석신의 신체에는 반드시 올게심리나 풋바심을 했을 때에 햅쌀을 담아 놓

36) <손님굿>은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두 지역에서는 광대한 사건을 가지고 손님마마와 사공의 관계가 자체 하에 다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경기도의 <손님노정기>이고 동해안의 <손님굿>이다. 이 두 가지 굿은 손님의 내력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37) 물괘심 등에서 흰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 옥수 세 그릇 등을 떠놓는 것을 보아서 삼불제석에 대한 의례인 것은 분명하나 <제석본풀이>에서 이러한 의례 절차를 거행하면서 구연했는지 알기 어렵다.

는 것으로 보아서 범씨의 신이한 면모가 인간의 생명적 탄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유감주술적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당굿을 할 때에 <안당말미> 또는 <안당제석말미>를 하는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삼승할망본풀이>와 <제석본풀이>는 전혀 다른 신화적 문법으로 되어 있으며 심층적 측면에서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외적인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심층적 구조의 일치는 <천지왕본풀이>와 <제석본풀이>를 함께 다루어야 이해된다.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이 신직을 부여받는 것이 핵심적 구조인데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꽃 피우기 경쟁’ 화소를 통해서 신직을 결정한다. <제석본풀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없다.<sup>39)</sup>

그런데 <제석본풀이>와 유사한 서사구조가 있는 <초공본풀이>가 별도로 존재한다. <초공본풀이>에서도 신직을 결정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가 결락된 것으로 이해된다. <삼승할망본풀이>에 <천지왕본풀이>에서만 보이는 요소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현재 추정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겼심과 <<불도맛이>>가 일치한다. 삼승할망이나 삼신할머니에게 비는 행위의 근거에는 생명의 잉태와 안녕이라는 의식이 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차가 있는 것은 동일하다. 삼승할망에 대한 별도의 신체는 모셔놓지 않으나 신

양의 근본은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성의 판단 저변에는 차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4. <삼승할망본풀이>에 변이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제주도 <삼승할망본풀이>는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꽃을 피워서 이 세상의 생명 관장신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신화의 신화소와 일정하게 관련성을 갖는다. <삼승할망본풀이>가 단순하게 생성되었다고 이해되지 않으며 신화소의 함의된 층위는 매우 복잡하고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은 것이라고 이해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도 속에 놓고 보아야만 온전히 알 수 있다.

- (가) 우주적 층위의 꽃 피우기
- (나) 인세차지 주도권 층위의 꽃 피우기
- (다) 인간 생명차지 주도권 층위의 꽃 피우기

(가)는 우리나라 신화나 제주도 신화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화소이다. 이러한 신화소는 오키나와의 신화에서 발견되며 「태양과 달」이 적절한 사례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신화에서 유사한 신화소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늘의 해와 달이 대결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38) 이에 대해서는 “김현선, 「<안당말미>와 <말미>의 존재 의미”라는 글에서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제석본풀이의 서울 지역 변이형에 관한 입체적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39) <삼승할망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제석본풀이> 등에 대한 비교는 다른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한다.

낮의 태양이 원래는 밤의 달이고, 밤의 달은 낮의 태양이라고 한다. 그것은 어느 날 밤 둘이 잠자는데, 오늘 밤 누군가의 배 위에 시야카나로(シヤカナロ)의 꽃이 피면, 꽃이 핀 쪽이 낮의 태양이 되고 피지 않은 쪽은 밤의 달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시야카나로는 달의 배에 피었다. 그것을 본 태양이, 자신은 낮의 태양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몰래 자신의 배로 옮겨 놓았다. 그래서 태양은 낮에, 달은 밤에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태양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수 없으나, 달은 얼마든지 정면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나)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시베리아, 몽고, 한국, 오키나와, 제주도 등지에서도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신화소의 핵심은 자신들이 창조한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란을 하고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결정한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꽃을 차지한 신이 이 세상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신화소의 핵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한다.

옛날 세상의 초기에(그 신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아마테라우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다른 많은 신들이 벌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차례로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 인간이란 것도 만들어야했기에, 점토로 인형을 많이 만들어서 뜰에 말려 두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허둥지둥 이것을 뜰에 넣어 정리하는데 다리를 구부리거나 손을 꺾어두거나 하여 간신히 인형을 정리해 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고쳐야만 했다. 고목을 꺾어와 그 고목에 꽃을 피운 사람이 고치기로 했다. 아마테라우스 오오미카미는 당연히 꽃은 자신의 가지에 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자고 있던 신이 몰래 꽃을 바꿔치기했다. 날이 밝은 후 그 신은 “자, 내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자, “그럼, 세상은 네 것임을 인정하겠지만, 그 대신 세상이 있는 한 도둑의 씨를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상에는 도둑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도둑의 세상이라면 “三すじがむいかまし”라고 해서, 보리에서 벼에서 조에서 모두 거두고, 끝에만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서, 이삭 끝에만 열매가 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콩을 만들 때에는 손이 너무 아파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서 그대로 던져 버렸다. 그래서 콩만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 다른 작물은 뿌리 끝에서 가지 끝까지 하나도 맺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 중에 장애인인 생기게 된 것도, 이 소나기로 인해 발이 구부러지거나 손이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41)</sup>

(다)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신화소이다. (나)와 유사할 것 같으나 신화소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다)는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인간의 생명을 차지하고자 하는 주체의 싸움에서 승패만 존재할 따름이고 둘 사이에 있어서 속임수를 쓰는 일은 있지 않다. 속임수가 없기 때문에

40) 山下欣一, 1985, 『日本傳説大系』第十五卷, みずうみ書房.

41) 위의 책.



승패가 반복되어서 패자가 승자가 되는 일은 더욱이 있지 않다. 이미 인세차지의 경쟁이 끝난 상태에서 삼승할망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임수는 사회 질서에서도 어긋난다.

(가), (나), (다)의 신화소가 동일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꽃을 피워서 주도권 다툼의 판가름을 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힘을 겨루기를 하거나 뛰어난 솜씨를 자랑해서 결판내지 않고 하필이면 꽃 피우기 시험을 하는가 하는 점이 의문적이다.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생명의 신비인 꽃 피우기는 단순한 일은 아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고 뿌리를 내림으로써 신비로운 비약이 일어나고 가지에 다시 열매가 맺고 이듬해에 다시 꽃이 핀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면서도 인간의 예지를 넘어서는 일이다. 인간의 예지를 넘어서서 신비로운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명을 기르는 시험을 해서 결국 인간의 생명 주도권을 갖게 한다.

지혜는 인간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다. 일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이다. 신앙은 신을 믿는 것으로 특출한 재주를 넘어서서 신앙의 신비로운 비약을 믿어야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단순한 지혜일 수 없다. 따라서 지혜 겨루기는 예사 신이나 영웅에게서 발견되는 다툼의 내용일 따름이다.

힘 겨루기는 일종의 용력이다. 군사적 권능은 영웅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기는 해도 생명을 관장하는 일에서는 그렇게 긴요치 않다. 오히려

영웅적 능력은 적대자와의 싸움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일일 따름이다.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죽음으로 빼앗는 일은 군사적 영웅에게는 필요해도 생명을 보전하고 계승하는 일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일이 아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마술이 아니다. 생명을 키우고 자랄 수 있게 하는 마음 자체가 소중한 일이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거나 이 세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거나 우주의 주도권을 다툼 때에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우주계 전체의 생명을 관장하는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자격 여부를 시험한다.

그것에서는 반드시 속임수가 개입한다. 상대방이 꽃 피워 놓은 것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적 층위나 세상의 주도권 다툼 층위에서는 속임수에 의해서 주도권이 결정된다.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우주적 질서에도 일정한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신화 시대에서 마련된 질서가 속임수로 인해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된 세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창조된 생명이 불완전하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불완전한 창조로 인해서 생명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불완전한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창조된 생명에게 질병이 있게 된 사정은 다른 신화에서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겠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는 <삼승할망본풀이>의 독창적 창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다른 고장에 있는 창세신화의 인간 창조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창세신화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창조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단순하게 인간사회의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중국신화나 오키나와 신화에서는 인간의 불구자가 생기는 내력이 밝혀져 있고 그러한 신화소는 중근동지역의 수메르신화에서도 발견된다. 불완전한 창조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일러주는 신화라고 하겠다.

<삼승할망본풀이>는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독자적으로 계승하고 변형한 무속신화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의 신화적 대결은 신화의 신역사에도 관련이 있고 상징적인 신화소 변형에도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 신화소의 보편성에 충실하게 따르면 서도 독자적 변형을 꾀한 것은 제주도 신화적 특수성의 발현이다. 동일한 직능을 부여받은 소종래가 다른 두 신이 충돌하면서 생불왕을 다투는 것은 다른 나라의 신화이면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요소이다. <삼승할망본풀이>가 갖는 여러 다면성 가운데 당신본풀이적 특성과 일반신본풀이적 특성이 균등하게 배합되어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생겨났으며 오키나와에 이와 유사한 신화소가 있는 것도 장차 중요한 비교 연구 과제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정식, 2003. 10. 18,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현선, 1977, 「한국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 \_\_\_\_\_, 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 \_\_\_\_\_, 2002,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문학회.
- \_\_\_\_\_, 2003. 9. 24, 「<안당말미>와 <말미>의 존재 의미」, 무속연구회.
-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4~110쪽.
- \_\_\_\_\_, 1992,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 조동일, 1977,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64~139쪽.
- \_\_\_\_\_, 2003, 『한라산 오르듯이』, 59쪽.
-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屋號書店.
- 山下欣一, 1985, 『日本傳説大系』 第十五卷, 東京: みずうみ書房.
- Lévi-strauss, 1963, 『Totemism』, Boston: Beacon Press, pp.16~17.

## Abstract

## A Study of the Mythological Meaning of the Goddess Conflict of the <Samseonghalmangbonpuri> in Jeju Province

Kim, Heon-Seon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nalyze <Samseonghalmangbonpuri>, an oral tradition epic that has been inherited from old times in Jeju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amseonghalmangbonpuri> reflects the history of the island province. An oral tradition epic serves to impart news on the victory or defeat of a political group and implies the recognition of oral tradition history. The trouble of the Dongiyongwang Ddanimaegi and Myeongjingu Ddanimaegi shows the solidarity course between incoming power and settling power.

The head of the settling power is Imbaksa. Imbaksa who represents the power and admires the God takes the lead in receiving the God. At the beginning, he maintains holy relationship with Dongiyongwang Ddanimaegi.

It is commonly found in oral tradition epics of Jeju province, especially Dangbonpuri, to worship a being that comes from the outside world across the sea. In <Samseongsinhwa> and Dangbonpuri, it is also frequently shown that a woman from the outside is married to a man who lives in Jeju province.

The woman has it over a man that she does farming and carries the seeds. So the man stops hunting and goes about for more offspring. Important in <Samseonghalmangbonpuri>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Samseonghalmang and Daebyeolwang. Samseonghalmang asks Daebyeolwang to wear in gulsongnak when he has come in white. She hurts Daebyeolwang's pride

<Samseonghalmangbonpuri> is a Shamanist custom myth which takes its own course in a competition unit of the come to flower. The special feature of the Jeju province Dangbonpuri lies in its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It is very meaningful that Daebyeolwang is requested to become a priest. It means that all authority of Daebyeolwang should be discarded. Because he is a vagabond god, the description structure is concluded. But it is unique to quarrel with two Gods who have the same type of occupation over a Saengbulwang.

<Samseonghalmangbonpuri> embodies and succeeds to a competition unit of the come to flower independent. The myth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Donghaeyonggung Ddanimaegi and Myeongjingu Ddanimaegi relates to the history of myth in <Samseonghalmangbonpuri>.

It is not common that two Gods with the same authority compete for Sangbulwang. <Samseonghalmangbonpuri> makes an equal combination between the features of Dangbonpuri and Ilbansinbonpuri. Therefore, future studies need to compare this with the similar myth of Okinawa.

Key words : Samseonghalmangbonpuri, A folklore history, Female God, Male God, A competition unit of the come to flower

K C I